ECONOMY 경제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광남일보

전남신보, 경영성과 돋보이네…보증공급 121% 달성

신규 1000억→4500억 확대 소액심사기준 상향·간소화 지난달까지 5438억원 지원 사고율 '3.69%' 전국 최저 출연금 360억원 조성 탄탄

전남신용보증재단이 올해 보증공급 확 대, 리스크관리 강화, 출연금 확보 등 주 는 올해 초 도내 요 경영지표 전 부문에서 우수한 성괴를 거두며 지역경제 버팀목 역할을 확고히 의 자금난 완화를

9일 전남신보에 따르면 경기침체 속 표를 기존 1000억 에서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보증과 심사 간소화, 소액심사 기준 상향(5000만원 →1억원) 등의 제도 개선을 병행한 결 과 지난달 기준 5438억원의 보증을 공 성괴를 거두게 됐다. 급했다.



지난달까지 목표 대비 121%를 달성하는

특히 지난해(3526억원)와 비교했을 과 만기연장·채무조정·상환유예 등 선제

때 1900억원 이상 늘어난 금액으로, 지역 적 리스크관리 체계가 빛을 발한 것으로 연금 누적 3670억원을 돌파하며 안정적 소상공인의 금융안정에 실질적인 숨통을 틔워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

있는 성과를 거뒀다.

(5.19%)보다 1.5%p 낮은 3.69%로, 전 국 17개 신용보증재단 중 가장 낮은 수준

분석된다.

재정기반 역시 더욱 튼튼해졌다. 정부, 전남신보는 건전경영 지표에서도 의미 전남도, 시・군, 금융권 등과의 협력 강화 를 통해 올해 출연금 360억원(전년 대비 전남신보의 보증사고율은 전국 평균 120%) 이상 조성이 예상되며, 설립 이후 역대 최고액이다.

특히 '지방소멸위기 대응보증'과 '산업 위기지역 긴급보증' 등 지역 특화상품이 이는 사고징후기업에 대한 조기 진단 호응을 얻으며, 금융회사의 출연 참여가 폭넓게 확산됐다. 이로써 전남신보는 출

재원을 확보하게 됐다.

이강근 이사장은 "올해 성과는 전남도 와 함께 한 노력의 결실로, 도민분께서 재단의 역할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용해주신 덕분이다"며 "내년에도 정부 의 생산적 · 포용금융 기조에 부응해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소기업・소상공인 이 실질적인 보증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
이산하 기자 goback@gwangnam.co.kr

현대차·기아, 브랜드 경쟁력 입증

레드닷 어워드 브랜드·커뮤니케이션 부문 14관왕

현대차·기아는 '2025 레드 닷 어워드' 브랜드•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최우수상 1개, 본상 13개를 수상하며 브랜드 경쟁 력을 입증했다고 9일 밝혔다.

중 하나로 매년 제품 디자인, 브랜드·커 다. 뮤니케이션 디자인, 디자인 콘셉트 부문 에서 수상작을 선정한다.

본상을 받았다.

현대차와 광고대행사 이노션, 배우 손 석구가 공동 제작한 영화 밤낚시는 전기 차 충전소를 배경으로 한 단편 영화로, 자 동차에 장착된 카메라의 시선에서 전개되 는 독창적 촬영 기법과 새로운 콘텐츠적 성형 AI를 활용한 프로젝트 '모빌렛' 등 시도로 지난해부터 예술계의 주목을 받아 이 본상을 받았다.

영화라는 점에서 이례적인 도전과 경계를 뛰어넘는 협업의 성공적 사례로 평가를 통해 5개 부문에서 본상을 받았다. 받으며 '제28회 판타지아 국제 영화제'에

서 심사위원 선정 국제 단편 경쟁 부문 '최고 편집상(Best Editing)' 수상, '칸 라이언즈(Cannes Lions) 2025' 그랑프 리를 포함해 클리오 어워즈, 뉴욕 페스티 레드 닷 어워드는 세계 3대 디자인상 벌등 세계 3대 광고제를 석권하기도 했

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(HMGICS)의 로보틱스 기반 체험형 스 현대차는 단편 영화 '밤낚시'로 필름· 마트팜 'CX 스마트팜'과 한식당 '나오'는 애니메이션 분야 최우수상과 광고 분야 인테리어 아키텍처 부문 본상을 각각 받

> 또 인공지능(AI) 기반 무료 광고 제작 플랫폼 '현대 애드크리에이터', 글로벌 누 적 생산 1억대 기념 캠페인 '한 걸음 더', 미디어아트 작품 '하이드로젠 웨이브', 생

기아는 'AI 어시스턴트 디자인'을 비롯 특히 밤낚시는 자동차 제조사가 제작한 해 디자인 전시 '오퍼짓 유나이티드', '기 아 체험형 전시부스', 'PV5 전시관' 등을

정현아 기자 aura@gwangnam.co.kr



전남도농업기술원은 최근 광주 서부도매시장에서 ㈜호남청과 및 광주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와 함께 골드키위 '해금'의 판로 확대를 위한 정가 수의거래 시범 판매를 실시했다.

전남농기원, 골드키위 '해금' 도매시장서 시범 판매

㈜호남청과와 협력…판로 확대·인지도 제고 추진

전남도농업기술원(원장 김행란)은 최 근 광주 서부도매시장에서 ㈜호남청과 및 광주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와 함께 골드키위 '해금'의 판로 확대를 위한 정가・수의거래 시범 판매를 실시했 다고 밝혔다.

이번 시범 판매는 2022년 체결한 공동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, '해금' 의 인지도 제고와 유통망 다변화를 목표 모에서 재배되고 있다. 그동안 주로 직거 로 하고 있다.

행사에 앞서 열린 농업인-중도매인 간 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, 농업법 인이 생산한 '해금'의 상품 가치를 인정받 고 도매시장 내 안정적인 물량 공급과 상 품의 균일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

성한 골드키위 품종으로, 현재 약 80ha 규 래 중심으로 판매돼 소비자 인지도 확산

에 한계가 있었으나, 이번 도매시장 시범 판매를 통해 다양한 유통망 확보와 신규 판로 개척의 기반이 마련됐다.

김행란 전남농업기술원장은 "'해금' 은 전남을 대표하는 우수한 골드키위 품 종이지만, 아직 많은 소비자들에게 널 리 알려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"며 "이번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해금 키위를 접할 수 있길 기대한다. 앞 '해금'은 전남농업기술원이 2017년 육 으로도 전남 신품종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"고

이현규 기자 gnnews1@gwangnam.co.kr

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 외국인 근로자 주거물품 지원

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는 최근 고 용허가제(E-9)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를 대상으로 '겨울철 주거환경 개선을 위 한 홈케어 물품 지원' 행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.

'고용허가제'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 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(E-9)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. 현재 17개 국가 근로자가 고용허 가제를 통해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다.

이번 행사는 겨울철 취약한 근로환경에 놓인 고흥지역 어업 외국인 근로자를 대 상으로 홈케어 물품(침구류) 등을 20가 구에게 지원, 안전하고 따뜻한 주거환경 개선 및 사업장 내 애로해소 지원 등의 목 적으로 마련됐다.

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 관계자는 "이 번 지원이 낯선 환경에서 근무하는 외국 인 근로자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"며 "외국인 근로자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, 지 역 사회의 상생과 포용 문화를 확산해 나 가겠다"고 말했다.

송대웅 기자 sdw0918@gwangnam.co.kr





인천공항 '기아 체험형 전시 부스'

